

제185차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
탐방자료집
죽령 옛길이 품은 숲과 문화
©숲탐방위원회, 2026

죽령 옛 숲길 넘어 만나는
한 많은 순흥의 역사를 같이 한 노거수들
2026. 6. 20 (토요일)



<길 위에 머무른 세월 죽령 옛길>



1992

(사)숲과문화연구회

목 차

* 2026년 6월 탐방안내, 탐방지도
탐방 세부 일정표, 주요탐방지 사진

I. 탐방지 이야기	-----11
1. 영주	-----11
2. 순흥	-----12
* 순흥지역의 역사적 변천	
* 순흥도호부와 역사적 유적지	
II. 숲과 어울어진 영주의 탐방지	-----16
1. 죽령 옛길	-----16
2. 순흥 향교	-----28
3. 금성대군 신단	-----29
* 청다리와 피골마을 & 은행나무 노거수	
4. 소수 서원	-----37
5. 태장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43

<2026년 6월 탐방 안내>

2026년 6월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

주최: 숲과문화연구회 숲탐방위원회



07:40 출발 (양재역 1번 출구)



10:30 죽령 옛길 탐방

죽령휴게소 → 소백산(희방사역) 폐역



약 2.5~2.8km
도보



12:30 무쇠달마을 탐방



12:45 점심식사 (풍기역 앞)



14:00~17:00 영주의 역사 숲 탐방



① 순흥향교 & 노거수



② 금성대군 신단
& 천년 은행나무



예비: 영풍 태풍 태장리 느티나무



600년 수령리
느티나무



③ 소수서원 & 적송 숲길



17:00~1 귀경 & 소감 나눔

20:00 해산 (양재역 1번 출구)

<탐방 지도>



* 태장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은 탐방시간에 여유가 있을시 탐방합니다.

* 2026년 6월 탐방 세부일정표

(2026/6/20 _ 죽령 옛길의 숲 & 순흥의 서원과 향교의 숲)

시간	진행 사항	비 고
07:40~ 10:30	오늘의 답사지 영주로 출발 _ 방문지 : 죽령 (내비주소 : 죽령휴게소)	양재역 1번출구
10:30~ 12:30	죽령 옛길 탐방 (동서트레일 구간) (내비주소 : 희방사역 폐역) _ 죽령에서 소백산(희방사) 폐역까지 _ 약 2.5 ~ 2.8km 거리 _ 1시간 20여분내외 소요길이나 2시간이상의 여유로운 탐방	옛길에서 만나는 야생화와 나무, 그들이 이룬 숲까지 & 옛사람의 삶의 흔적들
12:30~ 12:45	소백산(희방사) 폐역 및 무쇠달마을 탐방 _ 폐역, 마을길, 무쇠다리 등	무쇠달의 유래 무쇠다리를 찾아보자
12:45 ~ 14:00	점심식사 (내비주소 : 풍기역) _ 천지식당 (풍기역앞 / 청국장)	정감있는 현지인 맛집
14:00 ~ 17:00	순흥의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숲 등 탐방 _ 옛 모습 남긴 순흥향교와 노거수 (내비주소 : 순흥향교) _ 단종을 끝까지 복위하려던 금성대군 신단과 천년 넘은 은행나무 (내비주소 : 금성대군 신단) _ 세계문화유산 소수서원과 긴긴 세월 같이한 나무들 (내비주소 : 소수서원주차장)	영주의 소백산자락 순흥에 위치한 조선시대 공, 사립 교육기관과 단종복위운동으로 끝내 숨겨간 금성대군과 함께하는 숲과 노거수들
예비	* 16시 30분전 탐방완료시 추가예비 탐방지 영풍 순흥면 태장리 느티나무 탐방 _ 600년 수령의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내비주소 : 영풍 순흥면의 느티나무)	귀경길 풍기IC 진입전에 위치
17:00~ 20:00	귀경 _ 오늘의 탐방이야기 나눔	차량정체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
20:00	해산	양재역 1번출구

* 사정에 따라 탐방지와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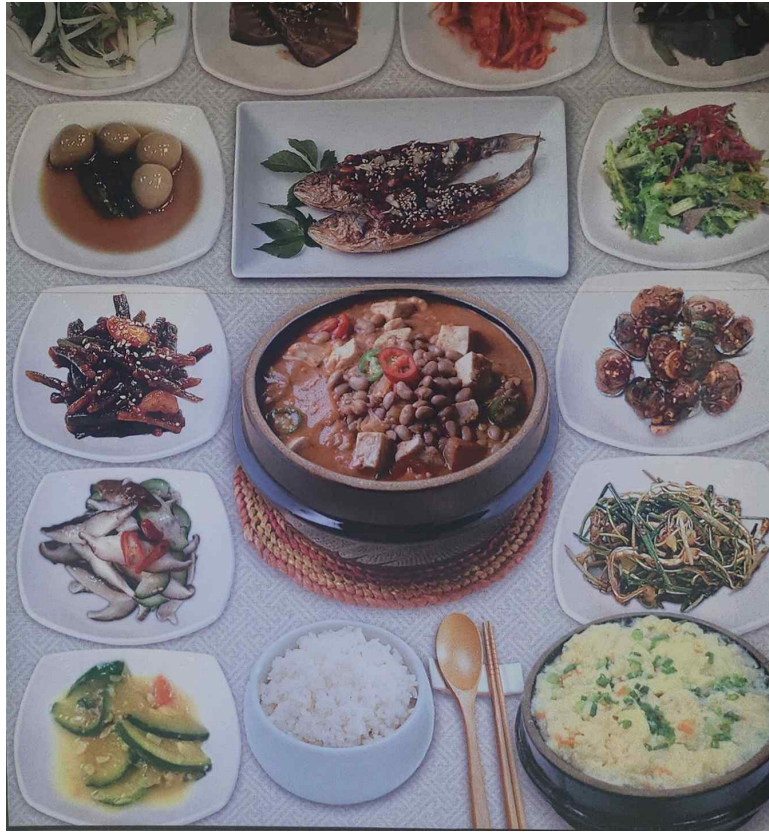
<주요탐방지 사진>



길위에 머무른 세월 _ 죽령옛길



문화공간으로 되살아나는 _ 희방사 폐역



고향정취 물어나는 **점심식사**



노거수와 함께하고 있는 **순흥향교**



쓸쓸함 물어나는 **금성대군 신단**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을 지켜봤을 **1,000년 넘는 수령의 은행나무**



소수서원 숲, 개천, 정자



소수서원 소나무숲



소수서원 강학당

<예비 탐방지>

1.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터



순흥도호부터의 **순흥지와 봉도각**

2. 영풍 순흥면 태장리 느티나무



역시 다른 느낌의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I. 탐방지 이야기

1. 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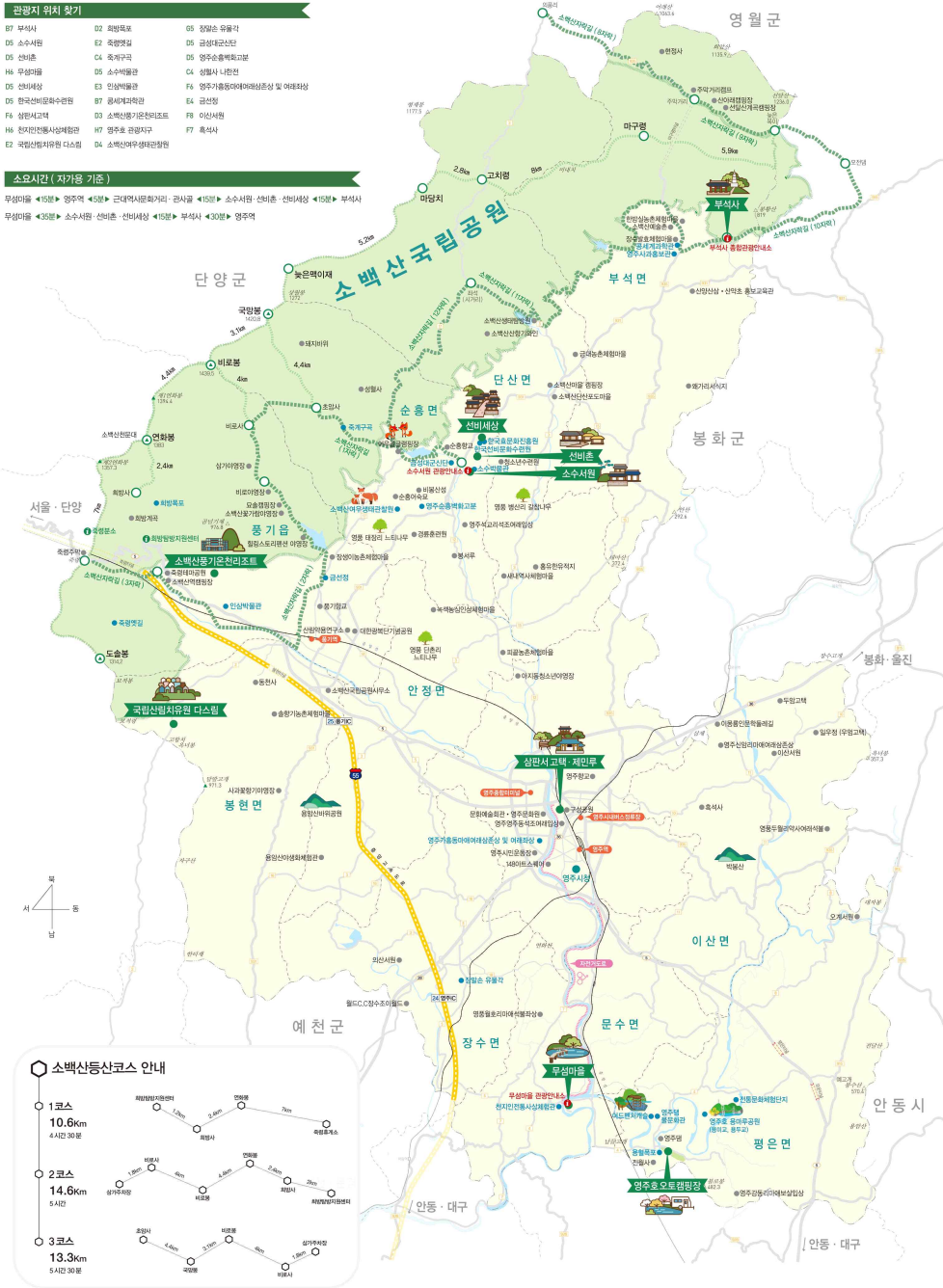
영주는 백두대간 소백산 남쪽에 소백산 산지를 벗어나 만나는 평야의 땅이다. 북쪽으로 소백산 너머에는 충청도의 단양이, 동쪽으로는 봉화와 안동이 서쪽으로는 예천과 접경을 하고 있다.

관광지 위치 찾기

D1 부석사	D2 괴양폭포	D3 영암순 유물각
D4 소수서원	D5 죽령옛길	D6 금성대교보전
D7 선비촌	D8 죽계구곡	D9 영주순흥체육교보
H4 무성리마을	D5 소수백담관	C4 성철사 나한전
D5 선비세상	E1 인사백담관	F6 영주거울동대여객터미널 및 아리새장
D6 한국선비문화수원관	B7 공세계리역전	E4 금선정
F6 철암사고택	D7 소백산생기운천리조트	F8 인사새재
H6 철암전통시장체험관	H7 영주호 관광지구	F7 흥선사
D2 국립선림치유원 디스립	D4 소백산야생생태관찰원	

소요시간 (자기를 기준)

무성마을 <15분> 영주역 <5분> 근대역사(문화거리)·관사길 <15분> 소수서원·선비촌·선비세상 <15분> 부석사
 무성마을 <30분> 소수서원·선비촌·선비세상 <15분> 부석사 <30분> 영주역



2. 순흥

주 탐방지인 순흥향교, 금성대군신단, 소수서원이 있는 영주시 순흥면일대는 조선시대에는 순흥도호부, 대한제국 시기에는 순흥군으로 동 지역의 중심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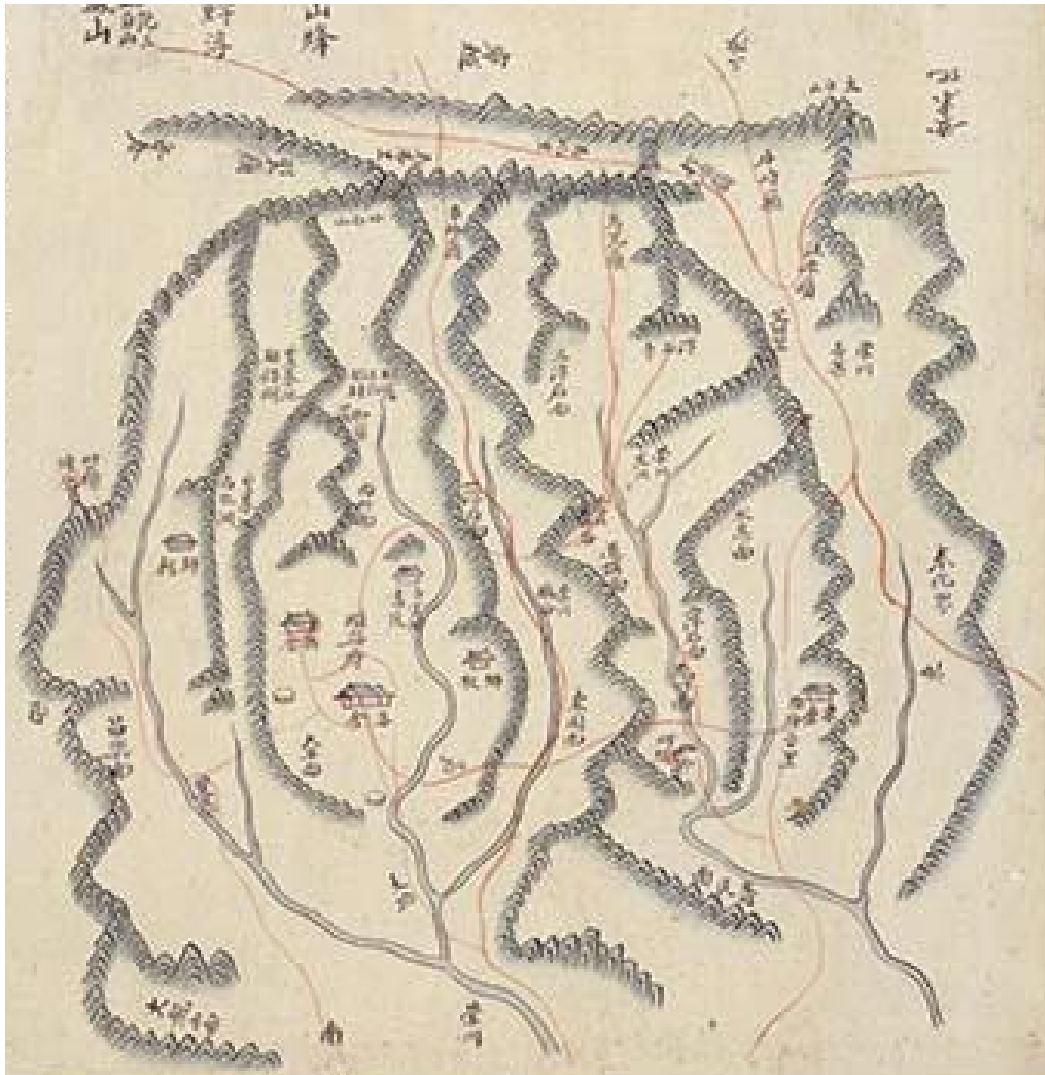


신라 적아현, 기목진
고려 은풍현, 기주현
조선 기천현 → 풍기군
대한제국 풍기군
일제시대 영주군에 통합
옛 은풍현 지역은
예천군에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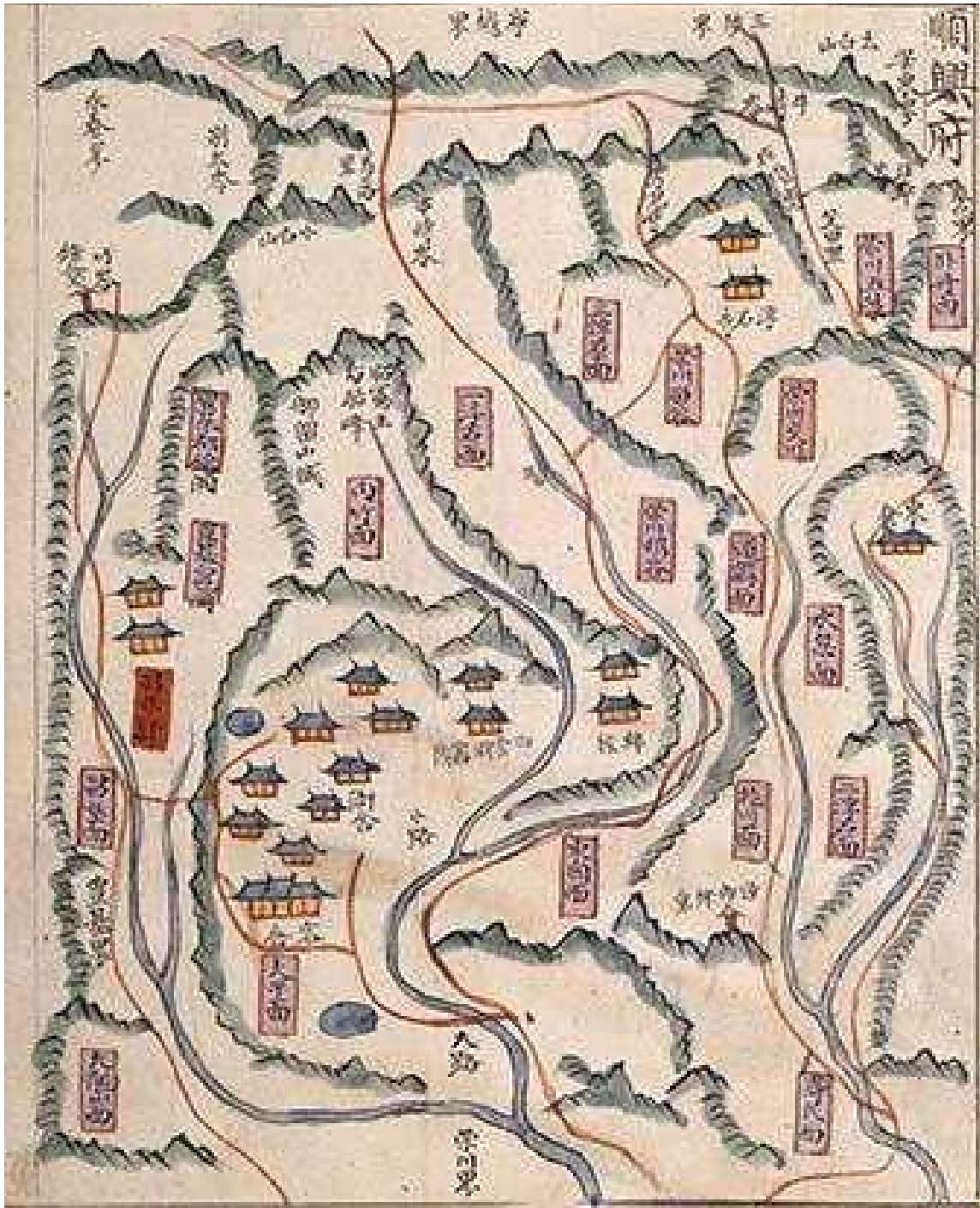


* 순흥지역의 역사적 변천

- _ 순흥지역은 풍수지리적으로 길지로 평가되어
고려시대 충렬왕, 충숙왕, 충목왕의 태를 모셨으며
조선시대 소헌왕후 심씨<세종의 부인>의 태실도 있었고
문종과 사도세자의 장손인 의손세손의 태도 인근에 있었다
- _ 고려시대 3명 왕의 태를 모시며 순흥부로 명명되어졌으며
조선 태종때 순흥도호부로 고쳤다.
- _ 조선 세조때 금성대군이 순흥에 유배생활중 단종복위운동과 관련하여
순흥도호부가 폐지되었으나 숙종때 명예회복되어 순흥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순흥의 옛 지도로 소헌왕후 태실, 향교, 객사, 소수서원, 금성단 등의 순흥주요지점이 뚜렷하게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또 다른 옛 지도로 주요 건물이 순흥에 모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순흥도호부와 역사적 유적지**

- _ 순흥도호부터 : 현 순흥면 소재지
- _ 제월교 : 단종복위운동시에는 순흥 청다리로 호칭되었으며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표현이 시작된 곳이다.
- _ 피골마을 : 단종복위운동과 관련하여 처형한 백성의 피가 청다리에서
흘러 10리밖 피골마을에서야 핏빛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 마을이 피골마을이며, 지금도 그 명칭을 사용한다.



II. 숲과 어울러진 영주의 탐방지

1. 죽령 옛길

- _ 죽령 고개에서 희방사 폐역까지의 2.8Km의 길이다.
- _ 아래 지도에서 보여지듯이 백두대간 도솔봉과 소백산으로 가로 막힌 충청도와 영남지방 동북부지방을 연결하는 고갯길이다



* 죽령옛길의 역사

(역사서의 남겨진 죽령에 대한 기록)

- _ 신라 아달라왕 5년(서기 158년) 3월 죽령길이 열리다 <삼국사기>
- _ 아달라왕 5년(서기 158년)에 죽죽이 죽령길을 개척하다 지쳐서 순사했고 고개마루에는 죽죽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다 <동국여지승람> (길을 만든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길)
- _ 신라 진흥왕 12년(서기 551년)에 신라가 백제와 연합하여 죽령 이북 열 고을을 탈취하고
- _ 고구려 영양왕 1년(서기 590년)에 고구려 명장 온달(溫達)장군이 자청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서 "죽령 이북의 잃은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 <삼국사기>



*** 죽령을 넘나들던 교통수단의 변화**

도보로 넘나들던 시절

걸고 말을 타던 조선시대에는 청운의 뜻을 품고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공무를 집행하는 관원, 붓짐과 등짐을 진 행상과 보부상들의 길이였으며

도로의 건설

1932년에는 비포장 신작로 도로가 건설되고 1972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으며 2001년에는 죽령터널을 뚫어 구불구불 1시간이상 소요되던 길이 현재는 5분내로 통과하고 있다.



1960년 아스팔트 포장전의 죽령

철도의 건설

1940년 대강, 죽령터널을 뚫어 1942년에 중앙선 철도가 다녔으며
(외길 단선, 루프식 또아리굴_대강터널, 증기기관차)

1988년 증기기관차에서 전기기관차로 전철화하여 수송력 증대하였고

2020년에는 직선형 신죽령터널을 뚫어 준 고속철이 양방향 운행되고 있다

*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른 죽령 옛길의 변화

삼국 ~ 조선시대의 옛 사람들에게는

영남과 한양을 잇던 거대한 '물류와 소통의 대동맥' 이었던 길이

근 · 현대 (1930~1990년대) 에

자동차와 철도에 밀려 숲속에 묻힌 '잊혀진 험로'가 되었으며

(고속도로와 국도가 옛길과 살짝 비껴간 노선으로 건설되면서,

죽령 옛길은 흙길과 돌계단, 주변 숲의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00년대이후 에는 빠름만을 추구하는 고속도로 터널(5분) 위에서,

느림의 미학을 배우는 '역사 · 생태 문화 공간' 재탄생되게 된다.

'명승 지정과 생태 트레킹 명소로의 부활'

영주 명동리에서 죽령 주막에 이르는 옛길 구간이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제30호' 승격 (2007년) 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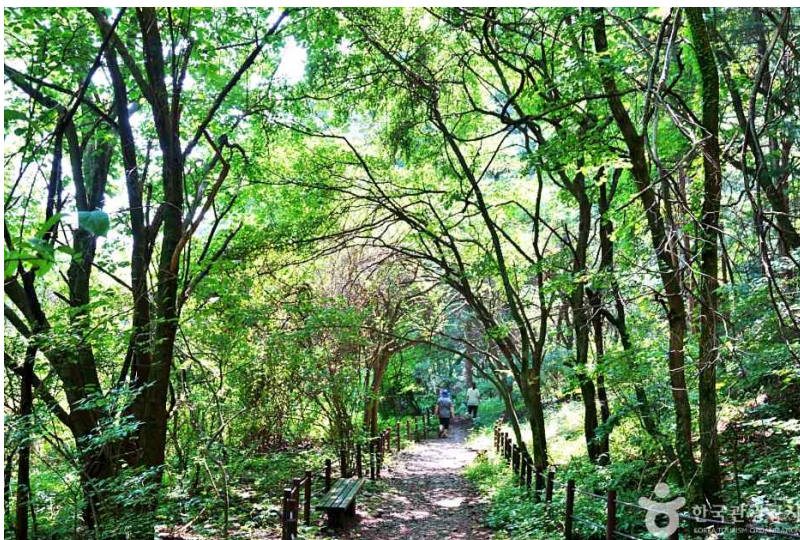
인위적인 데크를 최소화하고 옛 선비들이 걸던 자연스러운 흙길과

낙엽길을 살려 '소백산 자락길 제3코스'로 편입하였고

길 중간에 죽죽의 묘(전설 속 인물), 옛 주막터 등을 복원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혀,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역사를 걸으며 소백산

천연림의 생태를 체험하는 힐링 길'로 탈바꿈했습니다.



* 죽령 옛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

가. 문화

1) 죽령주막

옛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을 주막이 지금도 옛 모습 비슷하게 열려져 있다.



2) 죽령루 : 2011년 영주시가 죽령에 세운 누각이다



3) 죽령산신당



우리의 탐방로에는 없지만 단양에서 죽령을 가는 도로의 용부원리 마을 산 중턱에 죽령 산신당이 있다. 산신당 내부에는 '죽령산신지위(竹嶺山神之位)'라 적은 위패를 모셔져 있는데 죽령산신을 모시는 곳으로, 마을에서는 죽령 산신을 '다자구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어 이 건물 역시 '다자구할머니당'이라 칭하고 있다.

_ 다자구 할머니 전설

옛날 이곳에는 산적들이 밤낮으로 나타나 백성을 괴롭혔는데, 산이 험준하여 관군도 산적을 토벌하기 힘들었다.

이 때 한 할머니가 산적소굴에 들어가 '다자구야'하면 산적이 자고 있는 것이고, '덜자구야'하면 도둑이 안자고 있는 것으로 관군과 계획을 짰다. 두목의 생일날 밤 술에 취해 산적이 모두 잠들자 할머니가 '다자구야'라고 외쳐 이 소리를 들은 관군이 산적을 소탕했다. 이러한 할머니의 공적을 기려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4) 주막터


조선시대만해도 죽령 옛길의 곳곳에는 주막이 열려져 있었으며
옛길을 걷다 보면 주막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죽령에는 주막집을 형상화한 음식점이 있다)

_ 주막터였음을 알리는 곳



_ 죽령 옛길 주막에 대한 설명문

죽령竹嶺 옛길 주막酒幕
Tavern House on the Old Path of Jungnyeong Pass



주막은 사골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거나, 돈을 받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이다.
죽령은 옛날 경상도 북부 지역과 한양을 연결하는 교통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 먼 길을 가려면 주막에서 묵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큰 고개나 나루터에는 으레 주막이 있었다. 주막이 모여 있는 길거리를 '주막거리'라 불렀는데, 이곳 죽령에도 주막거리가 많았다.
가장 규모가 컸던 '무쇠다리 주막거리'가 있었던 수철리 마을 어귀를 비롯하여 '고깃마루 주막거리', '노티정 주막거리', 그리고 이곳 '주점 주막거리'가 대표적이다. 일제강점기에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죽령 옛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자 주막도 없어지고 말았다.
빈 주막 터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새소리, 계곡의 물소리가 옛날 이 주막에서 긴 여정의 피로를 풀며 고갯길을 지나던 길손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하다.

5) 퇴계, 온계 형제의 이별 장소 _ 축령대(矗冷臺)

충청감사였던 온계형과 풍기군수 부임하는 퇴계가
형제의 정을 나눈 장소로 (이후 온계형은 유배중 사망하여 못 만나다)
죽령(竹嶺) 요원(腰院)의 아래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에도 추정되는 장소에서 재현행사가 이뤄진다.

_ 퇴계선생이 남겨 놓은 두 형제의 시
(퇴계동생의 시)

爲破天荒作一臺 鶴原棠棣送迎來 泠泠恰似惟情溢 矗矗還如別恨堆
雁影峽中分影日 消魂橋上斷魂時 好登嶺路千盤險 莫負明年再到期

험한 터를 다듬어서 대(臺)를 꾸민 것은
감사 형님 오가실 때 마중 배웅 위해서죠
영롱한 물소리 우리 형제 깊은 정 같네
우뚝 솟은 산들은 이별의 한 쌓인 듯

안영협 골짜기에서 서로 헤어지던 날
소훈교 다리에서 뉘이 나가는 듯 했지요.
험하디 험한 영남 고갯길 잘 오르셨듯이
내년 다시 오실 기약 저버리지 마소서.

(온계형이 동생의 시를 받아 지은 시)

神輸鬼役築層臺 一夜能成待我來 眼力定應天奧覩 暫時斷跛白雲堆
西日奄奄若不遲 躑躅橋上酒闌時 雲山聽我丁寧說 好待明年來有期

귀신이 한 일인 듯 층층대 우뚝하니
하룻밤 사이 날 기다려 쌓은 것이라네
하늘 끝까지 눈에 들어오는 이 곳
비탈진 산길엔 흰구름이 올라오네

어느덧 벌써 서산에 해가 지는구나
술자리 파했지만 서성거리는 마음
구름 낀 산아 내 말 잘 들어주소
명년에 다시 오리니 꼭 기다리라고 하였다.

나. 숲과 식생

- _ 죽령옛길의 숲은 산림청지정 100대 명품숲이며 아래의 내용은 100대 명품숲으로 소개된 글이다.

죽령 옛길 주변의 숲(죽령지구)은 전체 면적 1,950ha 중 국유림이 1,553ha, 공·사유림이 397ha이며, 이 가운데 1,925ha가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다.

국유림에는 낙엽송(410ha, 1972년)과 잣나무(90ha, 1981년)가 넓은 면적에 숲으로 조성되었다.

인공림인 낙엽송·잣나무숲은 나이 50~60년이고, 낙엽송 인공림에는 물오리나무·물푸레나무·산뽕나무 등이 빈 공간을 차지하고 함께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천연림인 소나무와 굴참나무는 수령이 70년 내외이다



100대 명품숲 _ 죽령옛길 숲 (산림청 제공 자료)

* 주요 식생

1) 일본잎갈나무(낙엽송)

- _ 개요 : 침엽수이면서도 가을에 낙엽이 지는 특성이 있음.
이곳의 일본잎갈나무는 1970년대에 조성되어 약 50년의 수령을 자랑함.
- _ 조성 배경 :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1960~70년대에 생장력이 뛰어난 이 나무를 전국에 대대적으로 식재함.

가) 사계절 변화를 뚜렷한 보여주는 나무

- _ 봄: 연록색의 부드러운 새잎이 돋아남
- _ 여름: 짙고 푸른 녹음이 우거짐
- _ 가을: 깊고 은은한 황금빛 단풍으로 물들
- _ 겨울: 잎을 모두 떨어뜨려 앙상한 가지만 남김

나) 특징 및 주요 용도

- _ 특징 : 곧고 빠르게 자라는 속성수(速成樹)이며, 소나무나 잣나무보다 목재가 단단하고 질김. 특히 물과 습기에 견디는 힘(보존성)이 매우 강함.
- _ 과거 용도 : 철도 침목, 광산 갱도 지주목, 전신주, 토목 공사용 비계(발판) 등
- _ 현재 용도 : 구조용 집성재(보·기둥), 고급 건축 내외장재, 데크재, 합판, 친환경 펠릿 연료 등 고가치 자원으로 활용



2) 개다래

초여름(6~7월) 숲속에서 누가 흰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처럼
잎사귀가 하얗게 변한 덩굴 식물을 만나면 이것이 개다래다.

개다래 꽃은 잎 뒤쪽에 작고 하얗게 숨어서 피어 있는데
숲속의 벌과 나비 같은 곤충들이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전술적인 위장과 유혹으로 꽃이 필 무렵에
가지 끝에 있는 잎사귀들의 색을 하얗게 탈색시켜
멀리서 보면 커다란 꽃이 핀 것처럼 곤충을 유인한다.
수분이 끝나면 하얗던 잎은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탐방시 수분 양된 개다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개다래의 벌레 먹은 열매(충영, 蟲癭)는 '목천료(木天蓼)'라고 부르며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특히 통풍(요산 배출)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 질환에 효능이 탁월한 귀한 약재로 쓰이며
달콤한 맛으로 맛있게 먹는 참다래/토종다래와는 다르게
개다래는 맵고 혀가 툭 쏘는 자극이 있어 맛으로 먹는 과일이 아니다.



3) 기타의 식생들

죽령옛길에서 여러 다양한 풀과 나무의 식생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사전답사시 만난 몇몇의 사진으로 소개를 대신합니다.



다. 무쇠달 마을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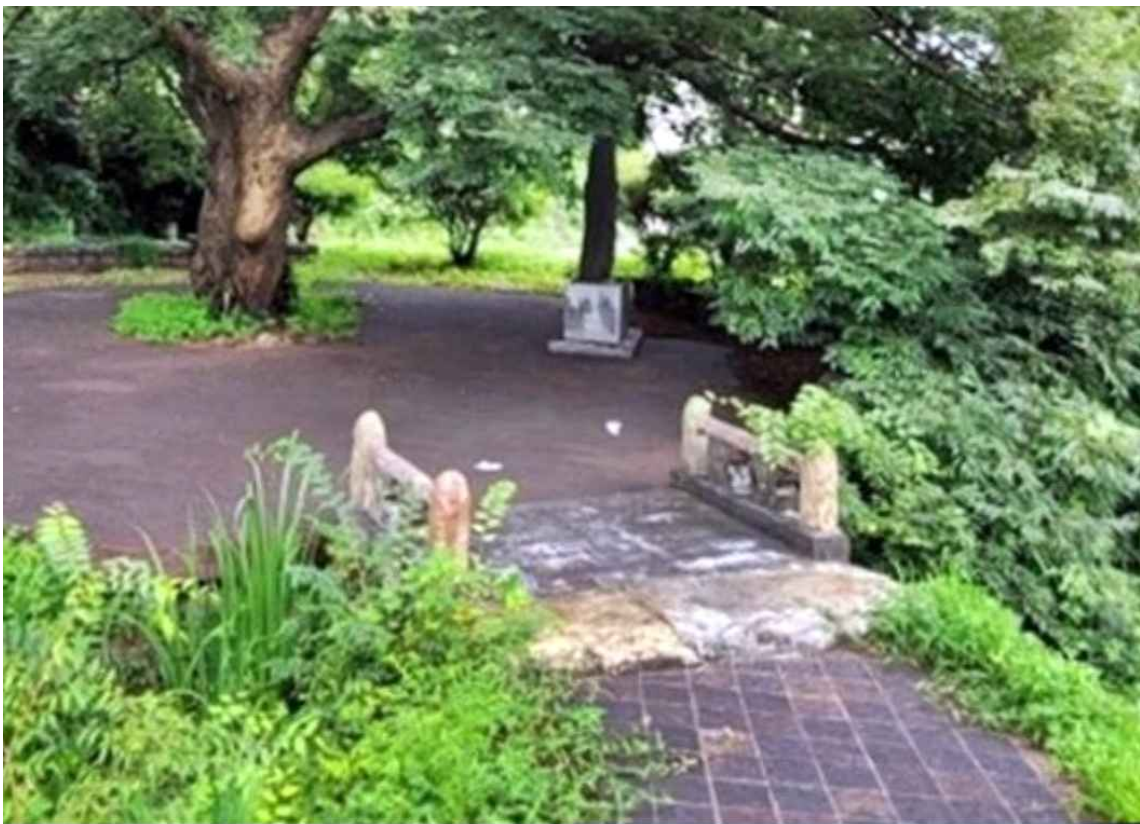
- _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수철리
(소백산 죽령옛길 시, 종점이며 옛 희방사역 인근)
- _ 특징 : 기차가 서지 않는 아늑한 산촌 마을의 문화 탐방지

2) 지명 유래 (무쇠다리)

- _ 의미 : '무쇠달'은 '무쇠다리'의 옛말이며,
한자 지명인 수철리(水鐵里) 역시 옛 이름 '수철교리'에서 유래함.
- _ 현황 : 원형 무쇠다리는 사라지고 현재는 현대식 다리와
재현 조형물이 그 터를 지키고 있음

3) 호랑이 보은(報恩) 전설

- _ 계기 : 신라 시대, 두운스님이 목에 비녀가 걸린 호랑이를 구해주자,
호랑이는 은혜를 갚으려 서라벌 호장의 딸을 물어와 바침.
- _ 결과 : 스님이 딸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고, 감동한 호장이
감사의 표시로 희방사 길목에 튼튼한 '무쇠다리'를 놓아줌.



2. 순흥향교

가. 위치와 연혁

- _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 _ 연혁 : 1398년(태조 7) 창건 후 단종 복위 운동(정축지변)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숙종 때 순흥부가 복설되면서 현재 위치에 재건됨.

나. 조선시대의 공교육 기관, '향교'

- _ 성격 : 오늘날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공교육 기관.
- _ 기능 : 지방 유생들의 학문 교육 및 유교 성현들에 대한 제사 봉행.
- _ 구조 : 제사 공간인 대성전을 뒤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을 앞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

다.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 노거수'

- _ 상징성 : 선비의 기상과 학문 정진을 상징하는 나무로, 옛 유학자들이 향교 주변에 즐겨 식재함.
- _ 역사적 가치 : 수백 년의 수령을 자랑하며, 순흥향교의 흥망성쇠를 묵묵히 지켜온 살아있는 증인이자 향교를 호위하는 수호목(守護木).



3. 금성대군 신단

가. 단종즉위전 세종, 문종시절의 금성대군

- _ 세종과 소헌왕후의 다섯 번째 아들이다
- _ 문종과 세조의 친 동생이며 단종의 친숙부이다.
- _ 세정이 신뢰하고 아꼈던 아들로 세종이 몸이 아파 요양이 필요할 때 두달 가까이 금성대군의 사저에서 요양을 했다는 신록의 기록이 있다.
- _ 세종과 문종이 궐을 나가 온천으로 행차시에는 어린 왕세손 단종을 금성대군의 사저에 맡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금성대군과 단종은 단순한 삼촌과 조카사이 이상의 교류가 있었음이 짐작된다.
- _ 문종은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에게 "내가 죽으면 어린 세자를 정성껏 보살펴 달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나. 단종의 즉위후 금성대군

- _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세조와 그 주변 세력의 왕위 찬탈 움직임에 맞선 세력으로 단종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려 했던 종친이었다
- _ 특히 수양대군에게 반대하던 안평대군이 제거된 이후에는 단종은 더욱 믿고 의지할 곳은 금성대군이었으며 금성대군도 적극적으로 단종의 울타리되어 주려 하였다.
- _ 그러나 수양대군과 왕위 찬탈세력은 단종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금성대군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 _ 모반을 꾀한다는 혐의를 씌워 경기도 삭녕(현 연천, 철원인근)으로 유배하게 됩니다.

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후 금성대군

- _ 수양대군과 그의 세력들은 금성대군을 삭녕으로 유배시킨 당일 단종에게 왕위를 양위 받으며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한양과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이배합니다.
- _ 세조 즉위 1년후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주도한 단종복위운동의 사건이 일어나고 세조와 그 세력들은 금성대군이 그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이자 어머니 소헌왕후의 외가 가문(순흥 안씨)이 살고 있던 영남의 오지 경상도 순흥도호부로 보내 '위리안치' 합니다.

라. 순흥에서의 단종 복위 운동 (1457년)과 금성대군

- _ 순흥유배생활중인 대군(금성대군)의 대쪽 같은 절개와 순흥도호부 부사(이보흠)가 단종의 비극적인 처지에 공감하며 뜻을 같이하게 된다.
- _ 1457년 여름, 단종이 영월 청령포로 완전히 유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행동을 개시하여
- _ 순흥을 중심으로 인근 영남 지역(안동, 영천, 풍기 등)의 선비들과 군사를 모아 군대를 일으키고자 하나
- _ 내부의 (관노나 군관으로 추정) 밀고로 실패하게 된다.

마. 세조와 그 세력들의 처절하고 잔인한 진압

- _ 정축지변(丁丑之變) : 순흥의 초토화와 죽계천의 피눈물
세조는 군대를 순흥으로 급파해 거사에 연루된 선비들뿐만 아니라, 순흥 땅에 살고 있던 무고한 백성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 _ 죽계천의 학살과 피끝마을
당시 학살당한 이들의 피가 순흥을 흐르는 죽계천을 따라 10리(약 4km)나 흘러내려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 피가 멈춘 곳이라 하여 '피끝마을'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습니다.
- _ 순흥부 폐부
세조는 순흥도호부를 완전히 해체하여 관아는 불태워졌고, 순흥은 '역모의 땅'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바. 금성대군의 의연한 순절 및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

- _ 안동 관아로 압송된 금성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 _ 사약을 받은 금성대군은 세조가 있는 한양이 아닌, 조카 단종이 귀양 가 있는 북쪽 영월을 향해 통곡하며 네 번 절(사배)을 올린 뒤 의연하게 사약을 마셨다고 한다.
- _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린 지 나흘 뒤인 조카 단종에게도 사약을 내려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만듭니다.
(동조했던 이보흠은 박천으로 유배되었다가 처형당했다.)

사. 청다리와 금성신단

- _ 순흥 안팎에서는 어른들이 모두 학살당해 갓난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겨졌는데 이웃 마을 사람들이 죽계천다리(청다리) 밑에 울고 있던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는데, 이것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구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청다리

어릴 때 어른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놀리는 말의 진원지가 되는 다리이다.



세조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순흥 백성들은 금성대군이 피 흘린 자리에 남은 혈흔을 돌로 덮어두고 몰래 제사를 지냈고, 훗날 조선 후기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명예가 회복되어 오늘날의 금성대군 신단(금성단)으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세 개가 단은 각각 금성대군, 이보흠, 기타의 무명열사의 단이다



아. "핏물이 흘러 멈춘 곳" 피골마을

- _ 승자의 기록이어서인지 실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사에 따르면 "순흥 30리 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혹한 대학살이 있었다고 한다.
- _ 순흥의 관원과 군사는 물론, 죄 없는 죄 없는 민초들까지 무참히 학살하였다고 한다.
- _ 순흥 청다리 등에서 목이 베인 수많은 희생자의 피가 죽계천(竹溪川)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 핏물이 냇물을 타고 약 10리(4km)를 내려와 마지막으로 멈춘 곳이라 하여 피골마을이라 부른다고 한다.
- _ 피골마을의 마을 이름은 5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자. 압각수(鴨脚樹)라 불리는 은행나무 노거수

- _ 금성대군 신단 바로 옆에는 단종 복위 운동의 비극과 금성대군의 충절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을 법한 나무가 있다.
- _ 수령이 1,200여년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 노거수다.
- _ "고을이 망하면 죽고, 흥하면 살아난다"는 예언의 나무라 한다.
- _ 금성대군의 거사가 실패로 끝나고 순흥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말라 죽어 거대한 고목의 그루터기만 남아 있다가 200여년이 지난 숙종 때(1683년) 금성대군의 명예가 회복(신원)되고, 순흥도호부가 다시 설치(복설)되자, 은행나무의 밑동에서 새로운 싹이 돌아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 _ 실제 이 나무를 보면 가운데 원래의 거대한 고목 줄기는 잘려 나간 흔적이 있고 그 주변을 세 갈래의 거대한 새줄기들이 감싸 안으며 자라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고치령 (古峙嶺) - 단종과 금성대군의 영혼이 만난 고개

금성대군이 유배되어 있던 경상도 순흥과
단종이 유배되어 있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를
최단거리로 잇는 소백산의 고개이다

- 위치

경북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사이
(높이 760m)

- 역사적 사연

금성대군은 단종을 다시 왕위로 복위시키기 위해
영월에 있는 단종과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는데,
이때 심복들과 밀사들이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넘나들었던
고갯길이 바로 이 고치령입니다.

- 산신각(고치령산신각)

고치령 정상에 있는 산신각으로
이곳에 모셔진 태백산 신령은 단종이고,
소백산 신령은 금성대군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조카와 삼촌의 영혼이
이곳 고치령 정상에서 산신령이 되어 마주 보고 있다는
애달픈 전설이 내려오며, 지금도 매년 이곳에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치령 산령각>



<산령각 안 _ 태백산신과 소백산신>

4. 소수서원 _ 지방의 사교육기관

가. 연혁

- _ 순흥은 고려 시대 대 유학자이자 한국 주자학의 시조인 안향(安珦) 선생의 근거지로 안향의 무덤과 사당이 이 지역에 있었다.
- _ 단종복위운동 실패로 역모의 잔재라 하여 민심이 황폐한 순흥에 정축지변 80여년 후에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폐허가 된 땅에 학문과 교육의 장인 백운동서원을 연다.
(단종복위운동으로 인해 폐허가 된 영남지방의 대표사찰 숙수사터에 백운동 서원을 세움 _ 보물로 지정된 당간지주나 남겨져 서원에 쓰여진 주춧돌을 볼 때 숙수사는 대사찰로 짐작된다)
- _ 이후 퇴계선생이 풍기군수시 명종 임금으로부터 직접 소수(紹修)라는 현판과 서책, 토지를 하사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된다.
*** 사액서원 : 임금이 이름을 지어 내린 서원**
- _ 서원 중에서도 훼손(철거)되지 않고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9개의 핵심 서원중 하나로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소수서원의 문화재

1) 국보 : 영주 소수서원 안향 초상

주자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대유학자 안향 선생의 초상화로
1318년에 그려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 원본이다.
소수서원의 초상은 복제품이고 원본은 소수박물관에 있다.



2) 보물 : 건축과 미술, 불교와 유교의 공존

-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유생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학문을 토론하던 서원의 건물
대청마루에는 명종이 내린 '소수서원' 친필 현판이 걸려 있다.

-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안향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문성(文成)'은 안향 선생의 시호입니다.

-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서원 입구에서 마주하게 돌기둥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로,
소수서원이 대사찰이었던 '숙수사' 터에 지어 졌음을 증거한다

- 영주 소수서원 주세붕 초상

소수서원(백운동서원)을 처음 건립한 주세붕의 초상화입니다.
도포를 입고 학문에 정진하는 학자의 풍모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수서원 강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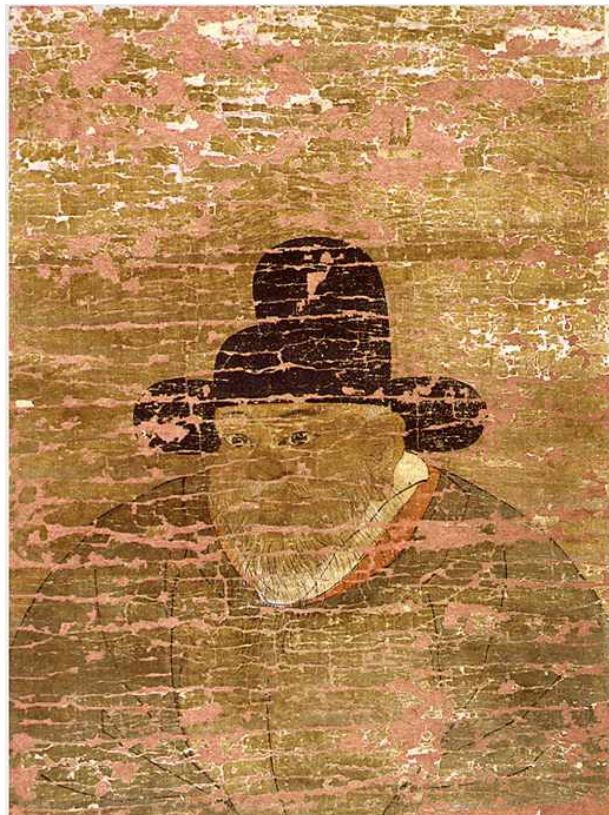


소수서원 문성공묘



소수서원 학자수림의 속수사지 당간지주.

속수사지 당간지주



주세붕 초상

3) 명소

- 경(敬)자 바위와 백운동(白雲洞) & 취한대

주세붕 선생이 정축지변의 원혼을 달래고 유생들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해 죽계천 변 거대 바위에 붉은 글씨로 새긴 '경(敬)'자와, 훗날 퇴계 이황 선생이 '백운동(白雲洞)' 세 글자를 새긴 바위 음각과 퇴계 이황 선생이 푸른 솔숲의 기운에 취한다는 뜻으로 이름 붙인 정자 '취한대'가 한 풍경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4) 소수서원 학자수림(學者樹林)

- _ 소수서원에는 서원 경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수령 300 ~500년의 노송 800여 그루가 유서 깊은 숲을 이루고 있다.
- _ 학자수(學者樹) 라 칭함
과거 유생들은 "어떤 시련에도 변치 않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배우라"는 뜻을 담아 학자수라 칭했다.
- _ 숨겨진 비보림(裨補林) 기능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겨울 삭풍을 막거나
주변 지형의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_ 울진 금강송의 사촌 소나무들이다
줄기가 붉고 곧게 자라는 적송(또는 강송) 계열 소나무이다



5. 태장리 느티나무 : 천연기념물

* 태장리

고려 세명의 왕의 태를 묻었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임금의 태(胎)를 감추어
묻었다(藏)는 胎藏里라는 마을 명칭만이 남아 있다.

- _ 이 곳 태장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느티나무는
마을 입구 길가에 서서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서낭목 역할을 해왔다.
- _ 수령은 약 600년으로 추정되며
줄기가 굵고 웅장하며, 사방으로 가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멀리서 보아도 아주 아름답고 당당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